

Wayne Shorter의 작품 'El Gaucho'의 작품 분석

김형준, 김대승
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,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
e-mail: jazzia@hanmail.net

A Study Analysis on 'El Gaucho' of Wayne Shorter

Hyeong-June Kim, Dae-Seung Kim
Music Production, KEIMUNG University, ChungWoon University

요 약

본 논문에서는 현재 Jazz에서 사용되어지는 Modal 기법을 Wayne Shorter의 작품인 "El Gaucho"를 통해서 알아보았다. F음을 중심으로 3/4 Note의 단순한 선율과 Pentatonic적인 선율에 주로 사용된 본 작품은 화성의 배열에 있어서 각 7개 Mode들의 특징적인 Chord들을 Modal Interchange 하고 있다.

1. 서론

현대의 Jazz는 작곡 기법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 그중 하나가 Modal Interchange이다. Jazz뿐만 아니라 가요와 Pop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고 유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Wayne Shorter의 작품 중에서 'El Gaucho'의 선율과 화성 분석을 통하여 이를 밝히려 한다.

2. El Gaucho의 작품 분석

2.1 El Gaucho의 Song Form 분석

[악보 1] El Gaucho의 A부분 Song Form

출처: The New Real Book (SHER MUSIC CO.1988)

El Gaucho
Wayne Shorter

Medium Latin
♩ = 182

(tenor)

(on repeat)

[악보 1]에서 보듯이 El Gaucho의 Song Form은 A 부분이 18마디로 구성되며 이를 반복하여 총 36마디 형태를 갖고 있다. 일반적인 8마디 단위와는 다른 형식이다. 또한 A부분의 선율과 화성이 a-b-c의 형식을 나타낸다. a는 4마디, b는 6마디, c는 8마디로 4마디에서 시작해 두 마디씩 확장됨을 보여준다. 전형적인 8마디의 발전 형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.

[표 1] El Gaucho의 A부분

A부분	a	b	c
마디수	4	6	8

2.2 El Gaucho의 선율 분석

[악보 2] El Gaucho의 a부분 선율 분석

위의 [악보 2]는 A부분의 a에 해당하는 4마디 부분이다. 동그라미 부분은 그 마디의 코드에 9th에 해당하는 음들이다. 각 마디의 코드에 꾸준히 9th가 나타나고 있다. a부분의 4마디는 전체적으로 G와 C가 주선율에 중심축이 되고 있다. F음은 4+와 2+에 나와서 강조성이 떨어지지만 둘째 마디의 EbMajor에서도 나타남으로 G-F-C의 음들이 주선율의 축이 되고 있다.

a부분에서 사용된 음은 F, G, C, E등 총 4개 음으로 F Key에서의 3음인 A나 Ab이 사용되지 않은 점도 나타나고 있다.

[악보 3] El Gaucho의 b부분 선율 분석

b부분은 F Minor Pentatonic Scale이 주선율에 사용 되었다. a부분이 선율에서 Major와 Minor의 성격음인 A와 Ab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b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. 사각형의 두 개 선율은 b부분의 주선율을 이루고 있으며 동그라미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11th와 9th를 해당 마디 코드에서 강조하고 있다.

[악보 4] El Gaucho의 c부분 선율 분석

c부분은 F Major Pentatonic Scale의 구성음인 F, G, A, C, D음들 중에서 A, C, D음만 사용되었다. [악보 2]의 a부분에서 강조되어진 F와 G가 c부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. 반대로 a부분은 A와 D음이 사용되지 않았다. 즉, a부분과 b부분이 F

Major Scale이나 F Major Pentatonic Scale의 음들이 서로 나뉘어서 나온다. 그리고 a부분과 c부분과는 대조적으로 b부분에서는 불완전 하지만 F의 Minor계열의 음이 나타나고 있다.

[표 2] El Gaucho의 선율의 특징

A	a	b	c
선율에 사용되어진 음	C E F G	F Ab Bb	A C D
특징	곡의 Root인 F가 나타남 Major와 Minor가 불분명	Minor가 명확	곡의 Root인 F가 생략 Major가 명확

셋째마디의 Dm9 코드는 F Major Scale의 Diatonic Chord로 보는 관점이 명확하다. 또한 셋째마디의 두 번째 코드인 Bb13은 Dominant7의 7이 빠진 것으로 F dorian Mode와 F Jazz Minor Mode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. 그리고 각각 Bb Mixo-Lydian Scale과 Bb Lydian b7 Scale이 사용된다.

넷째마디의 B13과 E7(#5,#9) 코드는 둘 다 각 모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코드로 SubV7의 관점과 Secondary Dominant7th 코드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.

이 후의 b부분과 c부분의 화성 분석은 I m7을 제외한 Minor7코드는 Dorian Scale로 I Maj7을 제외한 Major7코드는 Lydian Scale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.

[악보6] El Gaucho의 b부분 화성 분석

2.3 El Gaucho의 화성 분석

[악보 5] El Gaucho의 a부분 화성 분석

[악보 5]에서 보듯이 a부분의 둘째 마디는 EbMaj7 즉 bVII MA7 코드가 나온다. F Mixo-Lydian Mode와 F Dorian Mode 양쪽에서 나타나는 코드로 Eb, G, Bb, D등 코드 구성 음이 두 Mode의 특징음인 Eb, D 두음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두 Mode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. 또한 솔로 연주자는 F Dorian Mode 관점이면 Eb Ionian Scale이고 F Mixo-lydian Mode의 관점이면 Eb Lydian Scale을 사용할 수 있다.

[악보 6]은 b부분의 화성 분석으로 첫째마디의 Fm7은 a부분 곡의 시작 코드인 FMaj7코드와 대비되는 I m7로 사용 되었다. 그러나 둘째 마디의 GbMaj7코드 때문에 넷째마디 두 박자까지는 F Phrygian Mode로 사용 되었다. 물론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Fm7코드에서 Minor 계열의 Scale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. 넷째마디 마지막 코드는 a부분의 둘째마디와 같은 기능으로 F Mixo-Lydian Mode의 코드가 사용 되었다. b부분의 선율은 이러한 Mode와 Scale의 특징 음들은 사용되지 않았다.

[악보7] El Gaucho의 c부분 화성 분석

[악보 7]에서 보듯이 c부분은 Minor 7th 코드 가 주로 사용 되었다. 첫째마디의 Cm9은 Vm7으로서 Cm9코드를 Dorian Scale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F Mixo-Lydian Mode에서 나음을 알 수 있다. 물론 F Dorian과 F Aeolian Mode에서도 나타난다. 둘째마디의 Dm7과 G13은 II-V 진행으로 D Dorian Scale과 G Mixo-Lydian Scale의 관점에서 F Lydian Mode에서 나음을 알 수 있다. 마지막 코드인 Em11은 F음을 Root로 하는 Mode중에서 F Lydian Mode가 유일하다.

선율 분석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화성 분석적으로 a, b, c부분이 각각 다르지만 F를 중심으로 a부분은 Major느낌이 중심이고 b부분은 Minor느낌과 Phrygian Mode가 주로 사용되었고 c부분은 Minor코드지만 F Mixo-Lydian, Lydian, Ionian Mode의 코드들이 사용되었다.

3. 결론

본 논문에서 논자는 Wayne Shorter의 작품인 “El Gaucho”를 분석함으로써 3~4 Note의 단순한 선율과 Pentatonic 적인 선율에 각 화성이 대비되면서 같은 Root의 7개 Mode의 구성 화음이 사용됨을 알았다.

a부분 넷째마디에서 Dominant7 코드가 나오므로 Toanl Music의 요소도 갖추고 있지만 b부분에서는 F Phrygian Mode가 a부분과는 대비되는 관계로 사용 되어서 Modal Music의 구조도 갖추다. 또한 c부분에서는 Minor코드가 온음씩 상행하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Mode는 Major계열이 사용됨을 알았다. 이는 선율과 각 화성 진행과 사용되어진 Mode와 융합과 대비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.

참고문헌

- [1] Wolf Marshall’s “The Jazz Theory Book” (SHER MUSIC CO. 1995)
- [2] The Jazz Theory Book By Mark Levine
- [3] Pat Metheny’s Pat Metheny Song Book (Hal Leonard Corp 2000.6)